



“더 이상 감옥은 안 가겠죠”

《리영희저작집》발간과 함께 ‘절필’ 선언
‘겸손하게 하늘 뜻 따를 터’
‘오늘의 리영희 있게 한 사람들에 감사’

“앞으로 더 이상 감옥은 안 가겠죠.”

지난 9월 18일 《리영희저작집》(전12권)의 출간을 기념하는 모임에서 ‘절필’을 선언하며 리영희 선생이 지인들에게 던진 말이다. 좌중은 일순 웃음바다를 이루었고, 선생은 얇은 미소로 좌중의 웃음에 답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해찬 전 총리, 노회찬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과 백낙청 교수, 조정래 작가 등 지인의 삶을 본받으려 애쓰며 살고 있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나를 핍박한 이들에게도 감사한다’

자신의 생을 반추해 보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리영희 선생은 요즘 “오랫동안 자신을 비판하고 핍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고백했다. 지난 50년 동안 글을 쓸 때마다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면, 비판과 핍박했던 사람들은 “오늘의 리영희를 있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 권력이든 자신을 늘 주시하고 비판의 눈으로 봐주었기 때문에, 때론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지만, 스스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할 수 있었다.

“내가 자칫, 내 성격의 부족함과 결함 때문에 학문을 연구하고 집필하는 데 있어서 경거망동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비판의 눈 때문에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그 사상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완벽해지도록 그토록

노력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선생은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다 했고, 그로 인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가 지식인으로서의 중요한 책무로 여겼던 ‘글쓰기’는 진실을 향한 끝없는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1977년 선보인 《우상과 이성》 서문이다.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우리에게서 현실의 가려진 허위를 벗기는 이성의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가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만 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 없이는 인간의 해방과 행복, 사회의 진보와 영광은 있을 수 없다.”

쉽없이 우상에 도전...진보학계의 살아있는 신화

리영희 선생은 절필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평생 추구했던 사회 변혁과 국민의식 혹은 사상의 변화 발전 분량이 한 50% 정도는 지난 몇 해 동안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강단에서 서는 동안 사회에 공헌할 동량들이 충분히 배출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 9월 18일 (리영희저작집) 출간 기념 모임에 참석한 리영희 선생 부부.

이날 모임에 참석한 지인들은 리영희 선생을 '사상의 은사'라고 회고했다. ▶

그러나 지인들은 앞 다투어 리영희 선생의 절필 선언을 아쉬워하고 있다. 백낙청 교수는 “이성적 판단이 선명할 때 자신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선생답다고 생각하면서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조예가 깊은 불교 등 종교에 관한 가르침은 계속해서 남겨 달라”고 주문한다.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는 “리영희의 글쓰기에 세례를 받은 첫 세대”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김 교수는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비판이 1980년대 초반에 나온 것에 비교하면 리영희 선생은 1970년대 중반 서슬 퍼런 군사정권 하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비판했던 ‘우리의 혁명적 자산’이며 선구자적 지식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리영희가, 그리고 리영희의 생각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선생의 생각은 단호하다. “이제 이 세상에 말썽 일으키는 글 그만 쓰라고 뇌출혈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50년 고군분투했으니 이제는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더 하면 과욕이에요.”

그러면서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順天者興 逆天者亡)고 했어요. 이제는 족함을 깨닫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선생의 삶과 사상, 저작을 연구한 책 가운데 《리영희 살아있는 신화》라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처럼 그는 이제 진보학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 나의 삶의 근본 이념’

리영희 선생의 책 《전환시대의 논리》를 두고 백낙청



교수는 “당시 문제인사들의 서가에는 꼭 이 책이 꼽혀 있었다”고 돌이켰다. 당시 정가가 2,900원이던 《전환시대의 논리》는 정가의 몇 배가 되는 13,000원에, 그것도 헌책방에서 술한 대학생들에게 팔릴 정도였다. 1970년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선생은 ‘사상의 은사’였다. 그러나 그 대척점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리영희라는 이름은 대학생 ‘의식화의 원흉’으로 불렸다.

지금은 문화재청장이 된 유홍준의 혼인서약서의 ‘어른을 공경하고 나라에 공헌할 것’이라는 다짐 가운데 ‘나라’를 지우고 ‘사회’로 고쳐주었다는 에피소드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는 “난 애국하는 사람이지만 ‘거짓’에 입각한 애국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애국이란 반드시 ‘진실’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거부할 자유도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로 인해 언론사와 대학에서 각각 두 번씩 해직을 당하고 수인(囚人)이 되기도 했지만 선생은 마땅히 걸어왔어야 할 길로 여기고 있다.

“나의 삶을 이끌어준 근본 이념은 자유와 책임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더욱이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대화》중에서) 42

취재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